



**책읽는곰**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아이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책을 만듭니다.

미메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길 48  
전화 02-332-2672 팩스 02-338-2672  
홈페이지 [www.bearbooks.co.kr](http://www.bearbooks.co.kr)  
SNS Instagram @bearbooks\_publishers

하얀  
하얀



**책놀이책**

책  
놀이  
책



## 하얀 하루

김기정 글·문종훈 그림 | 책읽는곰 펴냄

소름소름 소르르 밤새 눈이 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불 속에서 꿈지락거리던 도톨이 신이 나서

책가방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톨은 눈을 뭉쳐 주먹만 한 눈덩이를 만들어선

데구르르 굴리며 학교에 갑니다.

눈덩이는 점점 커지더니 도톨 키만 해졌습니다.

언덕길에 멈춰선 도톨을 보고,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와 함께 눈을 굴립니다.

저 멀리 학교가 보이자 셋은 번쩍 손을 들고 “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눈덩이가 저절로 언덕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쿵쿵쿵!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 문종훈 작가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습니다. 눈 오는 날의 새하얗고 고요한 풍경과 시끌벅적 즐거운 풍경을 모두 담고 싶었습니다. 그림책 《작은 씨앗》, 《작은 물고기》, 《우리는 아빠와 딸》, 《사람이 뭐예요?》, 《동물들의 첫 올림픽》을 쓰고 그렸으며, 《하얀 하루》, 《모두를 위한 단풍나무집》, 《여기는 한양도성이야》, 《나무는 언제나 좋아》를 비롯한 여러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작가가 쓰고 그린 우리 아이들 이야기

### 그림책 베스트셀러 1위

최숙희, 이수지, 김영진, 윤정주, 유설화, 안녕달...

대한민국 대표 작가들의 그림책을 만나 보세요!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1위 | 한국문화예술평의회 문학나눔 | 세종도서 문학나눔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한국출판문화상 | 창원 아동문학상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북스타트 | 화이트레이브스 |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교과서 수록 도서



꽃에서 나온 코끼리  
국어 1-1



인사  
국어 1-2



용기를 내, 비닐장갑!  
국어 2-1

한국출판문화상



진짜 코 파는 이야기

볼로냐 라가치상



우로마  
2021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부문 스페셜멘션



그림자 극장  
2023 볼로냐 라가치상  
코믹스 부문 스페셜멘션



## 그림책을 보기 전에

1. 표지 그림 속에 무엇이 보이나요? 어느 계절의 풍경이라고 생각하나요?
2. 잔뜩 쌓인 하얀 눈을 본 경험이 있나요? 눈으로 무엇을 했나요?  
눈과 관련된 추억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3. 만약 아침에 눈을 뗐는데 하얀 눈이 잔뜩 왔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 그림책을 보고 나서

1. 여러분도 도톨과 친구들처럼 눈과 관련된 즐거운 추억이 있나요?
2. 주먹만 했던 눈덩이가 어떻게 해서 엄청나게 커졌나요?
3. 내가 양순 선생님이라면 아이들과 눈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 엄청나게 커다란 눈덩이가 생긴다면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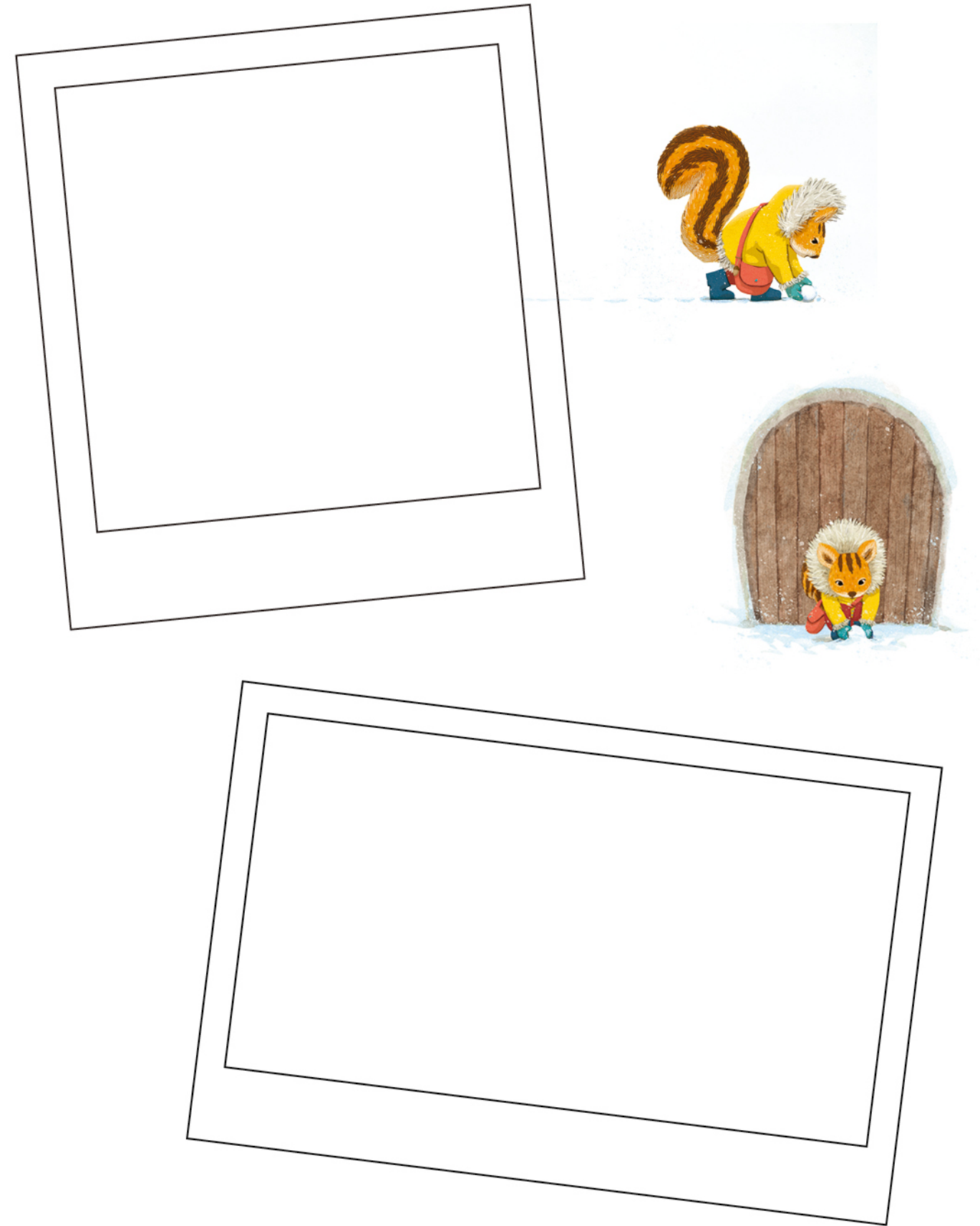
## 책놀이 1 흰 눈에 새기는 글자

도톨은 학교에 가기 싫은 겨울 아침에 온통 하얀 세상을 발견했어요.  
책 표지에 도톨이 눈을 굴려 '하얀 하루'라는 글자를 만든 것처럼 흰 눈이 소복하게 쌓인  
바닥에 만들고 싶은 글자를 커다랗게 적어 보세요.



## 책놀이 2 눈에 관한 나만의 추억

하얗게 쌓인 눈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눈에 관한 나만의 추억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그림 아래에 어떤 추억인지도 간단히 적어 보세요.



### 책놀이 3 누구의 발자국일까?

도톨이 눈을 뭉치며 걷는 길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어요.  
어떤 동물이 먼저 눈을 밟고 갔을까요? 책에 나오는 앞뒤 장면과 이어지도록  
빈칸에 그림을 넣어 이야기를 완성하고, 제목도 붙여 보세요.

## 제목:

작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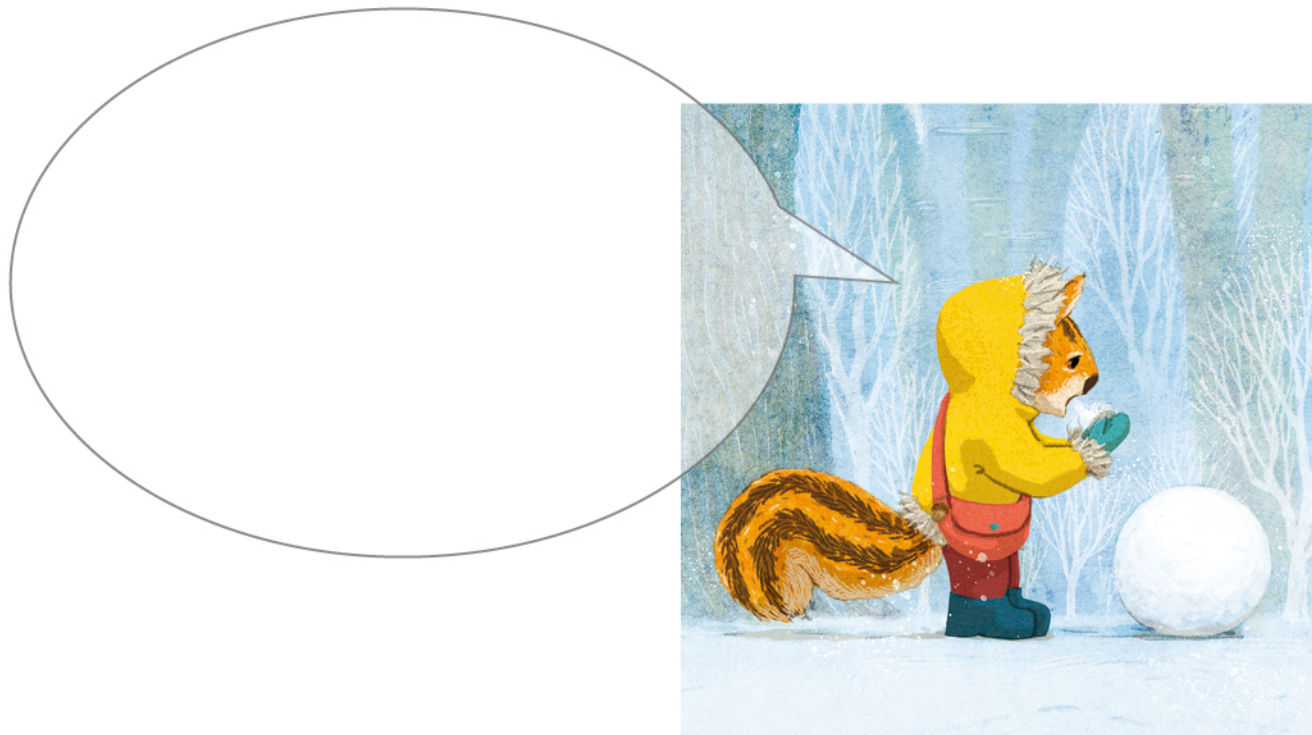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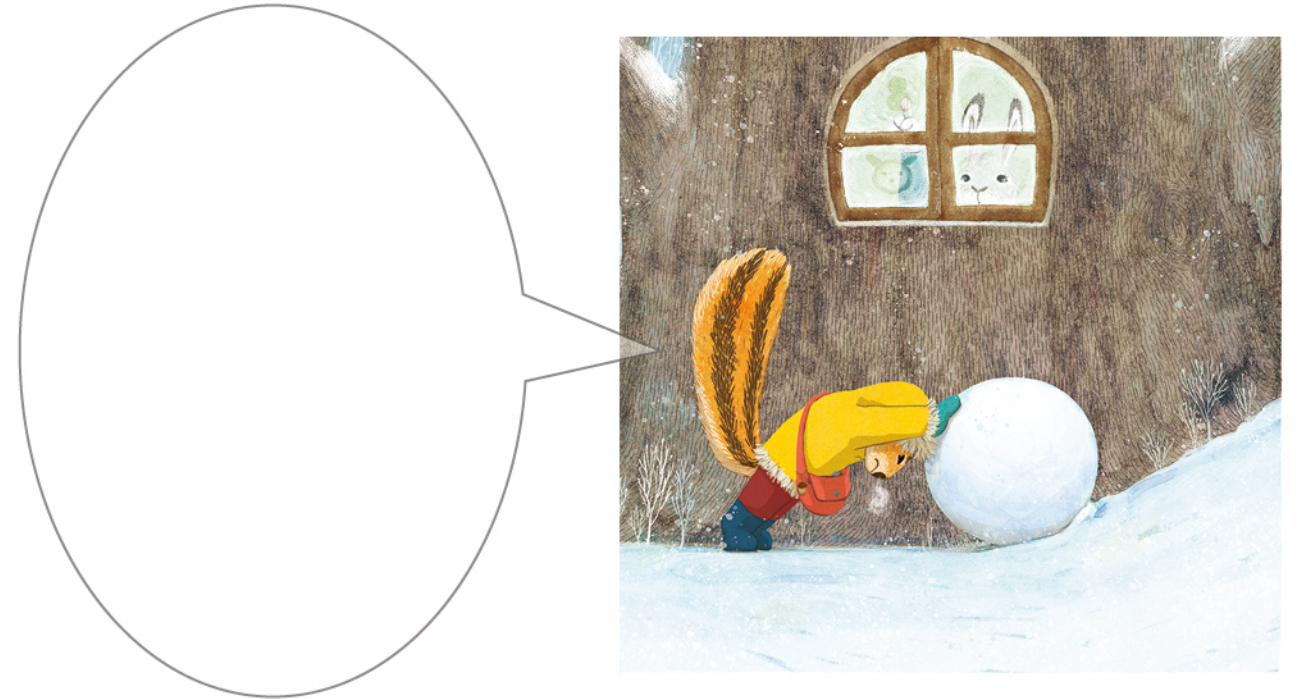


|  |  |
|--|--|
|  |  |
|  |  |



## 책놀이 4 내가 도톨이라면?

도톨은 하얗게 쌓인 눈을 발견하고는 눈덩이를 데구르르 굴리며 학교에 갔어요.  
아래 그림들을 보고 내가 도톨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런 뒤에 빈칸에 도톨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내용을 써 보세요.



## 책놀이 5 어마어마한 눈덩이를 보았어요!

주먹만 했던 눈덩이는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 학교 울타리를 들이박고서야 멈췄어요.  
어마어마해진 눈덩이를 마주한 아이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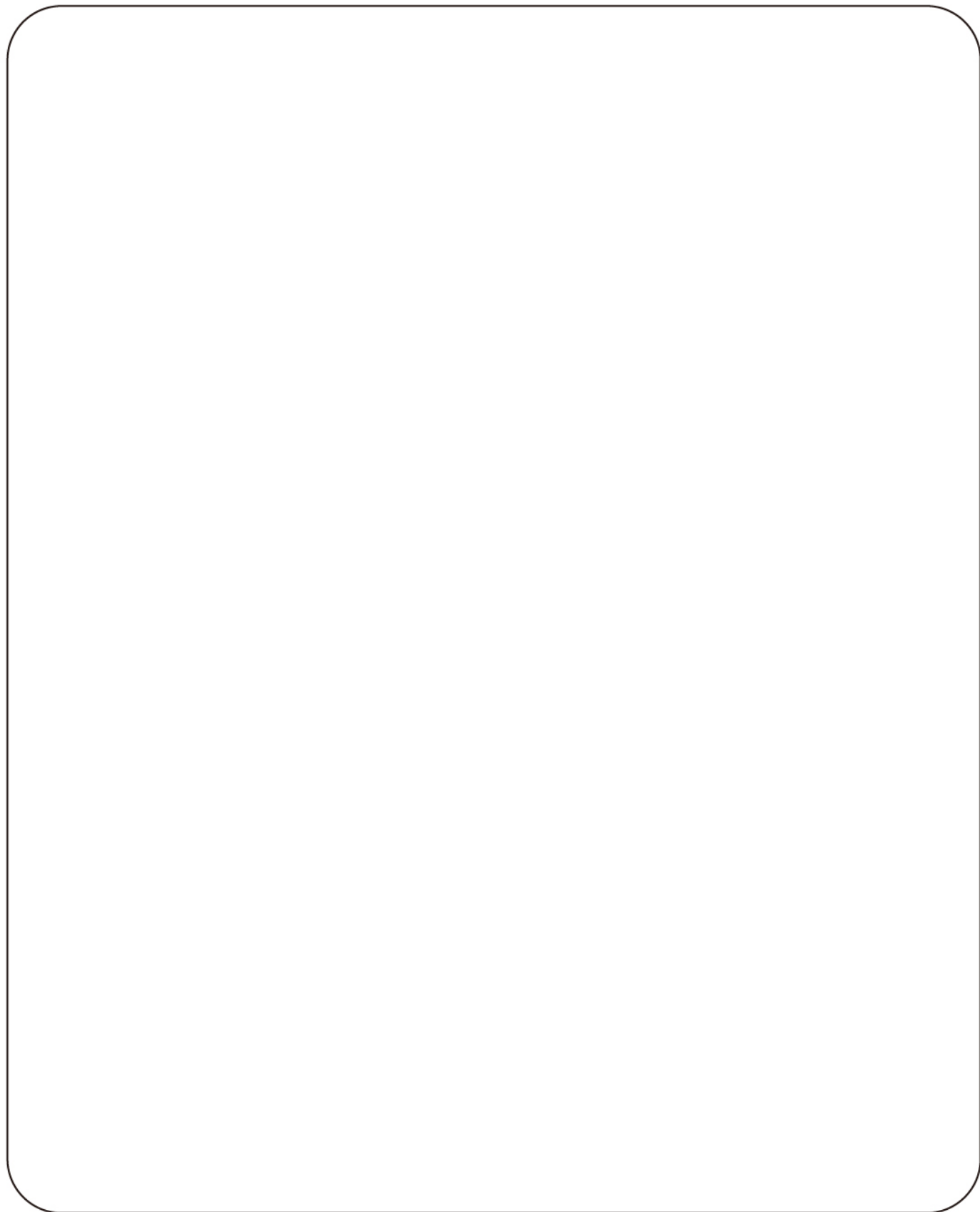
## 책놀이 6 도돌과 친구들 찾기

어마어마해진 눈덩이를 본 모두가 너나없이 달려들어 눈을 갖고 놀았어요.  
아래 그림 속에서 오른쪽에 나온 도돌과 친구들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 책놀이 7 무지무지 커다란 눈덩이 꾸미기

무지무지 커다란 눈덩이를 만난 아이들은 무지무지 커다란 거인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만들고 싶나요? 그림을 그려 표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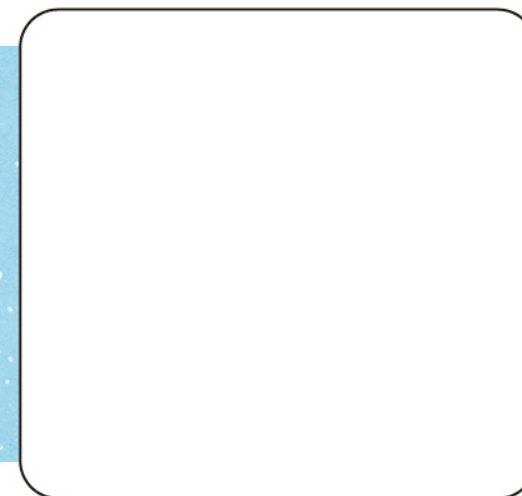


## 책놀이 8 음악과 함께 그림책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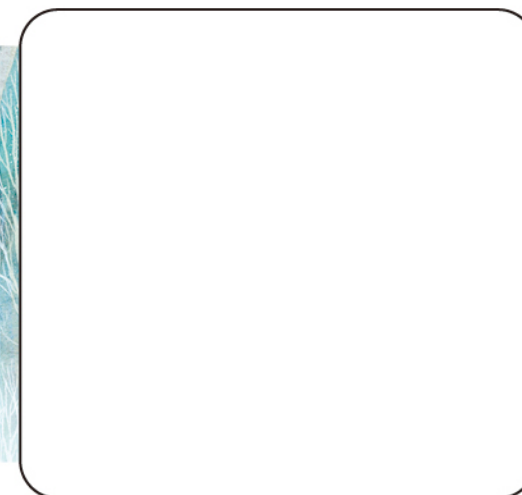


그림책 《하얀 하루》의 뒷표지에는 QR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주인공 ‘도톨’의 모델이 된 김기정 작가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때 작곡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며 다시 그림책을 읽어 볼까요? 각 음악을 듣고 느낀 점을 빈칸에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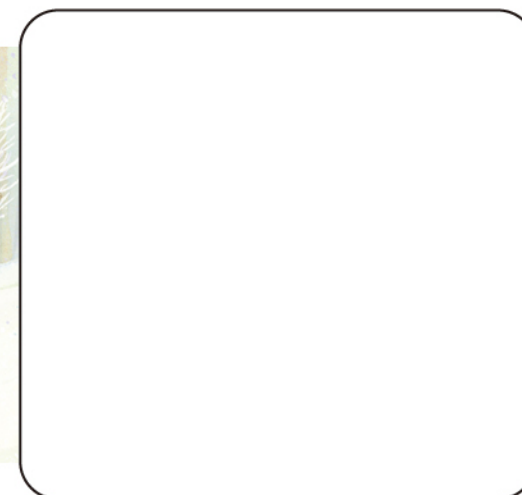
### 구름 산책



### 꿈속에서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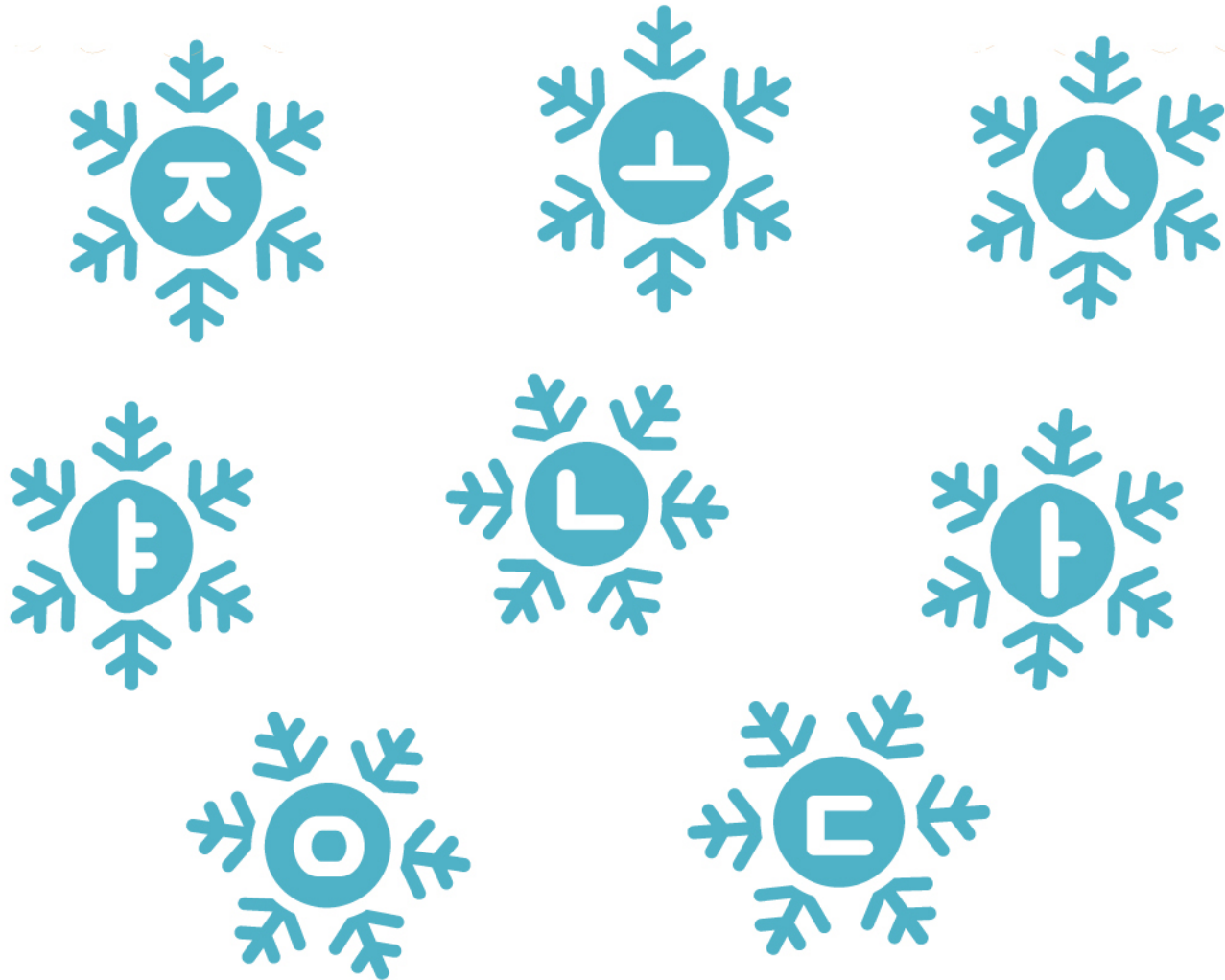


### 덤덤이 행진곡



## 책놀이 9 눈송이로 이름 맞추기

도톨과 함께 눈덩이를 굴린 친구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눈송이에 담긴 글자에서 힌트를 찾아 빈칸에 이름을 적어 보세요.



## 책놀이 10 학교 가기 싫은 도톨에게

날이 춥고 한참을 걸어야 하자 도톨은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도 학교에 가기 싫었던 적이 있나요?  
도톨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응원의 편지를 써 주세요.

[illegible]

# 김기정 작가는...

《하얀 하루》는 큰아들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그날 이야기를 하면 환하게 웃는답니다. 동화 《바나나가 뭐예요?》를 쓰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해를 삼킨 아이들》로 제8회 창비좋은어린이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림책 《하얀 하루》, 《장승 벌타령》, 《비야 비야 오너라》, 동화 《금두껍의 첫 수업》, 《박각시와 주락시》, 《별난양반 이선달 표류기》를 비롯한 여러 어린이책을 썼습니다.

## 책놀이 6 정답



## 책놀이 9 정답

